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 및 유용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최 정 혜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family strengths by Interests and usefulnes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Choi, Jeong-Hy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high school students' family strengths by interests and usefulnes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533 high school students in Kyungsangnamdo region, three high schools were selected in urban Jinju and three other schools were selected in countryside of Hapchun.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by SAS program, a social, scientific and statistical processing program, and analyzed the date using the statistical methods of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1. The degree of family strengths among high school students was 3.23, when the maximal family strengths value was set to 5.0. The significant variables to the family strengths of high school students were type of school, domestic financial status, average score of term, self-respect.
2. The higher a student recognized of the interest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the healthier their family strengths was.
3. The higher a student recognized of the usefulnes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the healthier their family strengths was.
4. The influential variables to the family strengths in high school students were their self-respect, recognition of the usefulnes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grades, domestic financial status, recognition of the interest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주제어(Key Words) : 기술·가정교과 흥미도(interest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기술·가정교과 유용성(usefulnes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가정 교과는 현재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중의 하나로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을 유용하게 운영해 나가는 기술을 습득케 하는 교과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과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Curriculum)은 학습자에게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학교에서 유효한 지식, 사고의 양식, 경험 등 문화 내용을 재구성한 모든 수준의 계획이며, 학교교육에 역점을 두어 면밀하게 계획되고 강력한 실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육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교육부, 2000). 이러한 교육과정은 해당시대의 교육관, 사고방식,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왔는데 가정교과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변화해 왔다.

가정교과의 변천과정을 제1차에서 7차까지 간단히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동할 수 있는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체득하게 하고,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산업사회와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및 기술 습득과 함께 적성에 알맞은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기초적 지식과 기능 외에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기능으로 산업사회에 적응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나와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목표에다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첨부하였고 근로와 직업준비의 진로탐색을 강조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신을 둘러싼 가정생활의 이해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강조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의 충실과 함께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길러주기

를 강조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최정혜, 2001). 그런데 문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독립 교과이던 기술·산업과 가정교과가 기술·가정교과로 통합되면서 이 교과에 대한 정체성문제와 이 과목을 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학교사정에 따라 가정과 교사 또는 기술과 교사가 이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질적인 두 학문이 정책상 기술·가정 교과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이수시간은 축소되었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남녀 학생들에게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으로 이수되고 있는 점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남·여 학생 모두에게 실생활 교과인 기술·가정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유용한 생활인을 양성한다는 점은 가정교과 목표 중의 하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East, 1980) 매우 의의 있는 변화라고 하겠다.

한편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이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족해체로 인한 심각한 가족문제가 대두되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어나면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유영주, 2004). 우리가 가족을 건강하게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기능을 통하여 안정감과 전인적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인간의 사회성·공동체성은 가족생활을 통하여 길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요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나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은 청소년의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4; 윤세은·유영주, 2001; Dunn & Brown, 1994).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 문제가 가족문제의 영향으로 더 심각해지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

며, 그 일환으로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가족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나유미·임연진, 2003; 이경주·신효식, 200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비행문제들이 문제가 있는 가족환경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들(김영옥, 1996; 오재연·최정혜·김행자, 2003; 최규연, 1996)을 통해 볼 때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을 알아보는 것은 현대사회 변화로 야기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는 중요한 과제라 사료된다. 또한 기술·가정교과는 가족생활의 실천과 밀접한 교과로서 고등학생들이 이 교과에 대해 가지는 흥미도와 유용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살펴보는 것은 기술·가정교과의 사회적 공헌도를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 있는 과제라고 본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가족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어떠하며,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 연구문제2.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3.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4.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건강성의 개념 및 관련 변인

가족건강성은 최근 가족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 건강해야 함을 의미한다.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Otto(1962)가 건강가

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원간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면서 사회심리·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Stinnett등(1977)은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 모두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자녀관계에서도 행복도가 높고,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유영주(2004)는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건강가족의 특성에 대해 Stinnet & Sauer(1979)는 애정과 감사에 대한 표현능력, 가족원들이 함께 시간보내기, 가족에 몰입하는 정도나 책임감, 긍정적 의사소통 능력, 종교적 태도, 문제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등의 6가지 특징을 보았으며, Hall(1994)은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세대간의 상호작용, 역할공유, 유연하고 개방된 관계, 유연한 신념, 최소한의 권위구조, 활발한 사회적 관계, 안정되고 통합된 체계 등으로 보았다. Curran(1983)은 건강한 가족이 특성을 가족의 의사소통, 인정, 존경, 신뢰 등의 가족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로서 어은주·유영주(1995)가 한국가족의 건강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하위요인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문제해결능력, 대화기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등의 4개영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최선희(2001)는 의사소통, 애정과 사랑, 신뢰와 지지, 문제해결능력, 부모역할, 자율성, 유연성, 신념체계 등의 8개영역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어은주·유영주(1995)의 가족건강성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자료가 별로 없으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윤세은 등(2001)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 가족건강성의 유의한 변인임을 밝혔으며, 청소년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다고 보고하여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오재연 등(2003)은 중·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임을 밝혔으며, 가족건강성의 유의한 변인으로 경제력과 자아존중감 등을 보고하였다. 그 외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로서 주부의 가족건강성에 관

한 연구에서 경제수준을 유의한 변인으로 밝힌바 있으며 (유영주, 2001; Brigman, 1986), 또 종교가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윤세은·유영주, 2001).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나타난 유의한 변인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으로 학년, 성별, 학교형태, 거주 지역, 부모연령과 직업, 부모의 교육정도, 생활수준, 학기말 성적, 기술·가정교과 선호도, 자아존중감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기술가정 교과의 흥미도 및 유용성 개념과 관련 변인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 및 유용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바 없으므로 여기서는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와 유용성에 대한 개념 및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 가족건강성과의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란 “고등학생이 기술·가정교과에 대하여 갖게 되는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이나 태도의 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제7차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애 등(2003)은 중·고등학생의 제7차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 흥미도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 학년,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등을 보고하였으며, 김운주 등(2003)은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운영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서 성별차이를 밝혔고, 신영순(2001)은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에 대한 남·녀 학생의 필요도 및 흥미도 분석에서 성별 차이를 밝혔다. 신부용(2002)은 중·고등학생의 제7차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학년,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등을 밝혔으며, 이준임(1996)은 6차 가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내용 흥미도와 실생활 적용도 연구에서 흥미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성별, 가정의 월평균소득, 가정교과 평균 성적, 가정교과의 선호도 등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에 유의한 변인으로는 주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중에서 학년,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보고 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가정교과의 평균성적이

나 선호도가 보고 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의 유용성이란 “고등학생이 기술·가정교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실생활 이용의 유익함에 대한 인식의 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동순 등(1997)은 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가정교과의 활용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밝혔는데 이는 가정교과의 실생활 유용성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신부용(2002)은 중·고등학생의 제7차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 가정교과 내용에 대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학년,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신용해 등(1999)과 오현주·홍성야(1997) 등은 기술·가정교과의 실생활 유용성에서 성별 차이를 밝혔으며, 이준임(1996)은 가정교과의 실생활 적용도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아버지의 학력, 월 평균소득,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교과 평균성적, 가정교과 선호도, 가사참여 정도 등을 보고하였다. 지금수·이진숙(2002)은 가정교과 유용성의 유의한 변인으로 학습참여도 및 요구도, 학습환경 평가도와 가정교과 인식도 등을 밝힌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기술·가정교과의 유용성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 학년,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 평균소득 등이 공통적으로 보고 되었으며 그 외 가정교과의 평균 성적이나 선호도 등이 보고 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볼 때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와 유용성에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의 평균성적이나 선호도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와 유용성 인식이 가족건강성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앎을 추론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와 유용성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33)

구분		N	%	구분		N	%
학년	2학년	469	88.0	어머니 교육수준	국졸	63	12.2
	3학년	64	12.0		중졸	112	21.6
성별	남	220	41.4		고졸	276	53.3
	여	312	58.6		대졸이상	67	12.9
학교형태	남자고등학교	126	23.6	어머니 직업	무직	135	27.4
	여자고등학교	209	39.2		농업관련직	93	18.9
	남녀공학	198	37.2		생산·판매·서비스직	133	27.1
거주지역	도시지역	248	47.2		사무·전문기술직	50	10.2
	농촌지역	277	52.8		경영관리·전문직	10	2.0
아버지 연령	40세 이하	19	3.7		기타	71	14.4
	41-45세	214	41.6	가정경제수준	하	169	32.0
	46-50세	224	43.6		중	289	54.6
	50세 이상	57	11.1		상	71	13.4
어머니 연령	40세 이하	95	18.5	학기말 평균 성적	70점 이하	120	22.9
	41-45세	329	64.1		71-80점	126	24.1
	46-50세	76	14.8		81-90점	181	34.5
	50세 이상	13	2.6		91점이상	97	18.5
아버지 교육수준	국졸	57	10.9	아버지 직업	무직	15	2.9
	중졸	82	15.7		농업관련직	147	28.7
	고졸	250	47.8		생산·판매·서비스직	159	30.9
	대졸이상	134	25.6		사무·전문기술직	139	27.1
기술·가정 교과 선호도	싫어한다	128	24.0		경영관리·전문직	27	5.3
	보통이다	255	47.8		기타	26	5.1
	좋아한다	150	28.2	자아 존중감	하	75	14.1
			중		218	41.0	
			상		239	44.9	

으로서 도시지역 3개 학교와 농촌지역 3개 학교 남, 녀 학생 5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많으며 학교형태는 여자고등학교(39.2%), 남녀공학(37.2%), 남자고등학교(23.6%) 순으로 여자고등학교가 조금 많다. 거주지역별 분포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대상자 아버지의 연령은 46~50세가 가장 많았으며(43.6%), 다음으로 41~45세(41.6%)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 연령은 41~45세가 가장 많았으며(64.1%), 다음으로 40세 이하(18.5%)로 나타나 어머니의 연령이 아버지의 연령보다 좀더 젊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는 고졸이 가장 많고(47.8%) 다음으로 대졸이상(25.6%)순이며, 어머니의 경우는 고

줄이 가장 많고(53.3%) 그다음이 중졸(21.6%)순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학생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정도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여 '넉넉하다', '보통이다', '어렵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를 상, 중, 하로 처리한 결과, '중'이 가장 많고(54.6%) 다음으로 '하'(32.0%), '상'(13.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직업은 생산·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많고(30.9%), 다음이 농업관련직(28.7%), 사무·전문기술직(27.1%)순이며, 조사대상자의 어머니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고(27.4%) 다음으로 생산·판매·서비스직(27.1%), 농업관련직(18.9%)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기말 평균 성적은 81~90점이 가장 많고(34.5%), 다음이 71~80점(24.1%), 70점이하(22.9%), 91점이상(18.5%) 순으로 나타나 학업수준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기술·가정교과 선호도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고(47.8%), 다음으로 '좋아한다'(28.2%), '싫어한다'(24.0%)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좋아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상'이 가장 많고(44.9%), 다음으로 '중'(41.0%), '하'(14.1%)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 문항과 가족건강성 척도, 기술·가정교과 흥미도 척도,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유영주(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최정혜(2004)의 척도 23문항을 수정하여 가족원간의 유대 5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5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5문항,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5문항으로 4영역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항상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으로 해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0.95$ 였다.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 척도는 선행연구(신부용, 2002; 신영순, 2002; 유재희, 2003)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으며, 총 28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신뢰도 Cronbach' $\alpha=0.91$ 이었다. 기술·가정교과의 유용성 척도 역시 선행연구(신부용, 2002; 신영순, 2002; 유재희, 2003)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총 28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유용성 인식이 높음으로 해석하였고, 신뢰도 Cronbach' $\alpha=0.94$ 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8)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최정혜(2004)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으로 해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0.74$ 였다. 자아존중감 상, 중, 하의 분류는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각 문항별로 1점~2점을 받은 집단(총점 4~11점)은 '하', 3점~4점 사이를 받은 집단(12~15점)은 '중', 4점 이상을 받은 집단(16~20점)은 '상'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 대상은 경상남도 진주시(M고, J여고, P고)와 합천군(H여고, S고, Y고)의 고등학생으로 총 533명을 유의표집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3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S고등학교 1학년 남·여 각 3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 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는 2004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절차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설명 후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600부를 배부하여 56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53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변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정도 및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표 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정도 (N=533)

구분		M	SD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3.44	.8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22	.86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3.01	.82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3.24	.80
	전 체	3.23	.77

〈표 3〉 관련변인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 (N=533)

변인	M SD	t(F) D	변인	M SD	t(F) D
학년 2학년 3학년	3.23 .77 3.16 .79	.76	성별 여학생 남학생	3.24 .77 3.21 .77	.42
학교 남자고교 형태 여자고교 남녀공학	3.30 .77 3.30 .74 3.10 .79	* a 3.95 a b	거주 농촌지역 지역 도시지역	3.20 .80 3.26 .74	-.97
부 40세 이하 연령 41-45세 46-50세 50세 이상	3.49 .63 3.25 .73 3.24 .79 3.10 .86	1.30	모 40세 이하 연령 41-45세 46-50세 50세 이상	3.15 .79 3.30 .73 3.18 .81 2.91 .53	2.13
부 국졸 이하 교육 중졸 수준 고졸 대졸 이상	3.09 .84 3.17 .68 3.26 .78 3.29 .77	1.14	모 국졸 이하 교육 중졸 수준 고졸 대졸 이상	3.21 .82 3.14 .72 3.25 .73 3.42 .83	1.98
부 무직 직업 농업관련직 생산·판매·서비스직 사무·전문기술직 경영관리·전문직 기타	2.96 .87 3.22 .80 3.25 .70 3.23 .80 3.36 .81 3.12 .88	.68	가정의 하 경제수준 중 상	3.08 .78 3.31 .72 3.26 .90	* b 4.94 a a
모 무직(전업주부) 직업 농업관련직 생산·판매·서비스직 사무·전문기술작 경영관리·전문직 기타	3.28 .72 3.18 .81 3.18 .78 3.15 .88 3.32 .57 3.31 .70	.62	학기말 70점 이하 평균 71-80점 성적 81-90점 91점 이상	3.02 .77 3.19 .79 3.31 .73 3.35 .75	b ** ab 4.88 a a
			자아 하 존중감 중 상	2.71 .85 3.14 .66 3.46 .75	*** c 32.71 b a

*p<.05, **p<.01, ***p<.001

관련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다음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중간 점수인 2.5점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오재연외, 2003; 윤세은외, 2001)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족간 유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44), 그 다음은 '문제해결 수행능력'(3.24), '가족원간의 의사소통'(3.22),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3.01) 순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선행연구들(오재연외, 2003; 유영주·어은주, 1997; 윤세은외, 2000; 최정혜, 2004)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본 결과에서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제일 낮게 나타난 것은 가족규범이나 가족규칙 등의 가족가치와 관련된 가치관이 고등학생에게 낮게 공유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가족문화에 내재해 있는 가족 관련 가치 등이 고등학생들에게는 높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관련변인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형태 ($p < .05$), 가정의 경제수준 ($p < .01$), 학기말 평균성적 ($p < .01$), 자아존중감 ($p < .0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학교 형태별로 차이를 보여 남자와

교나 여자고교 학생이 남녀공학 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과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말 평균성적이 '81점 이상'인 학생이 성적이 '80점 이하'의 학생에 비해 가족건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기말 평균 성적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재연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학교형태와 가정의 경제수준, 학기말 평균성적, 자아존중감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연구할 때 이들 변인에 대해 고려해야 하겠다.

2.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 및 유용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 및 유용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분석 및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정도는 다음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본 결과는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가정교과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

<표 4>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N=533)

구 분		가족건강성	
		M	SD
흥미도	하(184)	3.06b	(.83)
	중(183)	3.17b	(.72)
	상(166)	3.47a	(.70)
	F	13.698**	

** $p < .01$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에 따른 가족건강성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본 결과는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유용성 인식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가정교과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고등학교의 기술·가정교과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기여할 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술·가정교과 교육을 잘 가르친다면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등학생의 바람직한 가족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결과는 신용해 등(1999)의 연구에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단원으로 '가족생활'이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909로서 2에 근접한 값을 지녀 본 연구에서 채택한 회귀식이 회귀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353),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195), 학기말 평균성적(.099), 가정의 경제수준(.094), 기술·가정교과 흥미도(.106)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학기말 평균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가정교과 흥미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5개 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24.8%였으며,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인 다음으로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 변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에 따른 가족건강성 (N=533)

구 분		가족건강성	
		M	SD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	하(78)	2.93c	(.92)
	중(301)	3.19b	(.68)
	상(154)	3.43a	(.79)
	F	12.001**	

** $p < .01$

3.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에 관련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0~.36의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가정을 충족하는

본 결과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 변인과 기술·가정교과 흥미도 변인이 영향 변인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기술·가정교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혼이나 가족해체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유영주, 2004; 최규련, 1996; 최정혜, 2004) 등을 감안할 때 학교 교육에서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가족건강성을 높여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

해서 고등학교의 기술·가정교과는 심각한 가족문제를 완화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 교과로서의 기능을 시사한다하겠다.

변 '가족간 유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표 6〉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533)

독립변인 \ 종속변인	가족건강성			
	b	β	Partial R ²	F
자아존중감	.323	.353	.159	91.580**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223	.195	.062	38.595**
학기말 평균성적	.035	.099	.012	7.863*
가정의 경제수준	.087	.094	.008	4.979*
기술·가정교과 흥미도	.137	.106	.007	4.370*
상수	.561			
R ²	.248			
D-W	1.909			

*p<.05,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의 생활실천교과인 기술·가정교과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정도 및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와 유용성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남·여 고등학생으로 도시지역 3개 학교, 농촌지역 3개 학교에서 총 533명을 유의표집 하였으며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처리에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23으로 나타나 중간점수인 2.5점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 이상의 점수로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학교형태, 가정의 경제수준, 학기말 평균성적,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존중감,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 학기말 평균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기술·가정교과 흥미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학기말 평균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가정교과 흥미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5개 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24.8%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건강성이 고등학생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생각할 때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시기 정점에 있는 고등학생의 심리적 환경으로 고등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밝혀진바(오재연외, 2003; 조윤정·김경신, 2000; 최규련, 1996)이므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등학생들이 안정된 가족환경에서 바람직한 학교생활 및 가족가치관을 키워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의 흥미도와 유용성 인식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안정을 요하는 가족문제 완화에 기술·가정교과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시키고 있는 학교교육에서 고등학생에게 기술·가정교과 지도를 잘한다면 미래사회의 가족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수업시수를 늘리는 일 등 기술·가정교과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있어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또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점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건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그 실천 방안으로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두 번째의 영향 변인으로 나타난 기술·가정교과 유용성과 다섯째 변인으로 나타난 기술·가정교과 흥미도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있어 기술·가정교과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 교과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고

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도와 유용성 인식 정도는 가족건강성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관시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기술·가정교과를 가족건강성과 연결시킨 연구가 이루어져 이 교과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다른 영향력 있는 변인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본 연구는 경남의 6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넓힌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경애·정난희·신부용(2003). 중·고등학생의 제7차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5(2), 101~120.

김영옥(1996).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김운주·유재희·곽노선·최은희(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운영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5(3), 75~88.

나유미·임연진(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4권 3호, 87~98.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4).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4호, 29~41.

신동순·김상희·오화자·정효숙·전혜경(1997). 중학교 남녀 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9(1), 71~82.

신부용(2002). 중·고등학생의 제7차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영순(2002).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에 대한 남·녀 학생의 필요·흥미도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용해·조계순(1999). 가정교과 이수부여별 남·여 고등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 지, 11(1), 13~24.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3(1), 81~94.
- 오재연·최정혜·김행자(2003).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5(4), 55~66.
- 오현주·홍성아(1997). 인천시내 남녀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9(1), 19~37.
- 유영주(2004). 건강가족 확산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3~11.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유재희(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운영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세은·유영주(2001).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이경주·신효식(2000). 청년기 자녀의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13.
- 이준임(1996). 제6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내용 흥미도와 실생활 적용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금수·이진숙(2002).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 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3), 77~88.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147~160.
- 최선희(2001). 한국인의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2001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9~22
- 최정혜(2001). 중등 가정과 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연구 원 중등교육연구 제13집*, 136~158.
- 최정혜(2004). 주말부부: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도.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2(2), 69~83.
-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1986). Strengthen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A study of strong families in Iraq. *Family Perspective*, 20, 61~73.
- Curran. D.(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nneapolis: Wonston Press.
- Dunn, J. & Brown, J.(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19, 694~702.
- Otto, H. A.(1962). What is a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1.
- Stinnet, N. & Sauer, K. H.(1979).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3~11.
- Hall. C. M.(1994). *New family: Revising and creating meaningful binds*. New York: The Hawrth Press.
- Rosenberg, F. R., & Rosenberg, M.(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 Stinnet, N., & Sauer, K. H.(1979).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3~11.

국문 요약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와 유용성 인식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의 고등학생으로 5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3.23점으로 나타나 중간점 2.5점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교형태, 가정의 경제수준, 학기말 평균성적,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흥미도와 유용성 인식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가정교과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자아존중감, 기술·가정교과 유용성 인식, 학기말 평균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기술·가정교과 흥미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4.8%였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에 기술·가정교과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가정교과를 통한 학습지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